

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헤럴드경제 4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헤럴드경제는 4.20일 「당국,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·DSR 풀어준다...가계 대출 규제 예외적용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LTV·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적용하기로 했으며... LTV DSR 등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금융위는 「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」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입니다.
-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·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이며,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| 책임자 | 팀 장 | 김태훈 (02-2100-16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송병민 (02-2100-1692) |